

제주산 한우 대한민국 보증 씨수소로 ‘우뚝’

올해 표선면 하천리 한마음농장서 2마리 선발
2015년·2017년·2018년 각 1마리… 총 5마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 산 한우 수소 2마리가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보증 씨수소로 최종 선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씨수소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한마음농장(대표 강덕규)에서 2015년 2월 출생한 한우 수소 2마리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개량사업 일환으로 축산과 학원·농협한우개량사업소·한국종축개발협회가 협업하여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유전능력 평가는 혈통과 외모신사, 씨수소와 후손의 능력(체중, 육질 등) 감정, 유전체 정보를 종합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과값 추정 등으로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매년 총 30마리(상반기 15, 하반기 15) 내외가 선발되고 있다.

올해 보증씨수소 선발은 전국의 한우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29마리의 후보씨수소에 대해 당대감정, 후대감

정 및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16마리가 확정됐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총 3마리(2015년 1, 2017년 1, 2018년 1)의 보증씨수소가 인증됐고, 올해 2마리가 추가로 선발되면서 5마리를 보유하게 됐다.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에서 제주산 한우 수소 2마리가 보증 씨수소로 최종 선발됐다. KPN 1283(사진 왼쪽)·KPN 1284.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의 한우사육비율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보증종모우 생산 비율은 2배인 3.9%에 이르고 있어 제주지역 한우농가의 개량능력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이번에 보증씨수소를 탄생시킨 한마음농장은 2010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로 부터 육종농가로 선정돼 철저한 계획교배와 능력감정을 통해

2015년도에도 보증씨수소 1마리를 생산한 저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축협 한우 컨설턴트 및 농가

자체의 꾸준한 소통과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국의 1% 수준인 사육규모로 인해 기존에 보유한 씨수소 만으로는 도내 정액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보증씨수소가 추가 선발됨에 따라 해당 씨수소의 정액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돼 우수한 능력의 한우 생산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능력의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코스닥 하락의 배경과 대응전략

하강 국면서 상승 사이클 전환 늦춰져

7월 29일, 코스피는 -1.78%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4.00%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7월 조정폭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하염없이 하락하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한국 증시만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한국 증시, 특히 코스닥이 아래쪽으로 소의 될 수 없는 배경과 향후 반등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이처럼 급락하던 시점은 작년 10월 대내외 중시가 유례없는 폭락사태를 빚은 국면이다. 당시 미국 FANG주식의 갑작스런 조정장세와 이탈리아의 위

시장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변경되면서 급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인한 바이오주 하락 이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해지,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닌’ 임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하여 코스닥의 중심이었던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랭하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이오주에 대한 밸류에이션(가치 측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적에 대한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는 것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다시금 매수에 나서게 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계약·바이오업 투자심리 급랭 신용잔고도 부담 “코스피 매력적 가격대 반등장서 유용하게 작용”

기, 거기에 미중 무역관계가 악화일로 보이면서 당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코스닥 급락은 글로벌 은행들의 통화완화 정책과 함께 해외증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에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증시가 해외증시 대비 큰 폭의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 사이클이 하강 사이클 국면에서 상승 사이클로의 전환이 뒤로 늦춰졌다는 점이 가장 핵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수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이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는 않은 가운데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수출경기의 회복시점에 대한 기대를 1~2분기 이상 늦춰지게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서 회복시점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실망매물이 증시를 흔들었고 이를 매수할 투자자들을 역시 지난 월요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사실상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실종된 것이 작금의 급락장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한일간의 무역분쟁 이전부터 코스닥

통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바닥 확인 과정에서는 신용잔고가 축소되면서 투매가 나타나게 되는 현재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아직 증시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감이 지속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본다면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회복 진입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코스닥 중심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 이번 급락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당분간 이 부분이 해소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3개월 연속 이후에는 반등세가 연출되었으며 코스닥 시장의 사총 200조원인 600pt, 그리고 코스피 2000pt의 경우에는 현재 악화된 기업실적 속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기에 중기적 관점에서의 분할매수가 향후 진행될 반등장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제주주택가격 올들어 줄곧 ‘내리막길’

수요 감소·공급량 누적 영향
1~7월 누계는 1.16% 하락세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올들어 산업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31일 발표한 '2019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제주지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30%(전국평균 이하 생략, 0.09% 하락) 급락했다. 0.1% 이하의 급락폭에서 지난 6월 0.15% 떨어진 상황에서 7월 들어 더 큰 등락폭을 보였다. 1~7월 누계는 1.16% 하락했다.

7월 제주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주택종합 0.30%(0.09% 하락) ▷아파트 0.46%(0.22% 하락) ▷연립주택 0.22%(0.12% 하락) ▷단독주택 0.18

%(0.25% 상승) 각각 줄었다. 특히 단독주택은 지난 5월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6월 들어 첫 마이너스를 기록 후 연속 두달간 하락세다.

7월 제주지역의 전세가격지수도 ▷주택종합 0.37%(0.19 하락) ▷아파트 0.43%(0.26% 하락) ▷연립주택 0.30%(0.12% 하락) ▷단독주택 0.43%(0.04% 하락) 각각 감소했다. 월세가격지수도 유사하다.

제주지역의 평균주택 매매가격은 7월 기준, 3억1222만원(3억1154만원)이며 3.3㎡(1평)당 845만원(1159만원)이다. 전세가격은 1억8474만원(1억9087만원)이며, 3.3㎡당 528만원이다. 월세가격의 경우, 보증금 평균가격은 964만원(4096만원)이며 월세 평균가격은 73만원(전국평균 64만원)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6월 제주산업활동 지난해 보다 부진”

생산·출하·소비 전부 하락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감소

제주지역의 올해 6월 생산·출하·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대신 재고량은 크게 늘어 전반적으로 제주산업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제주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제주지역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02.0(2015년 100 기준)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0.4% 감소했다. 다만 전월대비 2.4% 증가하는데 만족했다.

6월 업종별 증감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2.5%)과 골자지 및 상자 등의 종이제품(3.8%)은 증가한 반면 음료(-12.0%), 전기·가스업(-6.3%),

식료품(-30.6) 등이 줄음이 감소세를 보였다. 음료는 생수와 소주, 혼합음료이며 식료품은 가공해조류, 건장보조식품, 두부 등이다.

이에 따른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8.7% 줄었고 대신 재고는 65.0% 급증했다. 고무·플라스틱(-8.6%)의 재고량은 감소했지만 음료(12.6%), 식료품(35.8%), 비금속광물(123.3%) 등이 크게 늘었다. 비금속광물은 건축·설비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건설용 석제품, 흙관 및 VR관 등이 해당한다.

6월 제주지역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91.2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9.6% 감소했다. 신발·가방(-24.9%), 의복(-20.0%), 오락·취미·경기용품(-16.9%)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줄었고 반면 가전제품(15.2%)은 늘었다.

백금탁기자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름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점합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은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합,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북로 606, 3층

제주향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빌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 북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150㎡ 5억 - 해안동 생관리아(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경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국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선출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중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	---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8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역시간: AM 9시 ~ PM 9시 영요양은 없습니다.
NAVER 제 일 사 2194

제주대방면

와북방면

신제주방면

도남오거리

버스정류소

광양로터리

중앙로방면

터미널방면

문예회관

제주시청

농협남부지점